

KDC 제6판 건축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s of Construction and Architecture Fields in the 6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김송이 (Songie Kim)*

정연경 (Yeon Kyoung Chung)**

초 록

한국십진분류법(Korea Decimal Classification) 5판에서는 건축학 분야가 건축공학과 건축술이라는 두 항목으로 나뉘어 분류되었으나 2013년 6판에서는 '건축, 건축학'으로 통합되었다. 본 연구는 KDC 5판과 KDC 6판의 비교 분석과 DDC, NDC, UDC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개정된 KDC 6판의 건축학 분야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십진분류법과의 비교 분석결과 건축학은 항목 통합으로 인한 재분류의 필요성, 이전보다 길어진 건축사 분류번호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한국 전통 건축에 대한 분류 전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Constructions and Architecture fields were divided into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in the 5th edition of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but those were combined in the 6th edition of KDC published in 2013.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find problems and to suggest modification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5th and the 6th editions of KDC,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and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The necessity of reclassification, a long classification number for History of Architecture and addition of categories of traditional building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are required to improve the 6th edition of KDC and the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of those problems are suggested.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건축, 건축학, 건축공학, 십진분류법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construction, architecture, architecture engineering, decimal classification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 전공 박사과정(inmylibrary@hanmail.net)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 전공 교수(ykchung@ewha.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14년 8월 1일 ■ 최초심사일자: 2014년 8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2014년 9월 17일

■ 정보관리학회지, 31(3), 7-27, 2014. [http://dx.doi.org/10.3743/KOSIM.2014.31.3.007]

1. 서론

한국십진분류법(Korea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KDC)은 듀이십진분류법(Dewey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DDC), 일본십진분류법(Nippon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NDC), 국제십진분류법(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이하 UDC)을 참고하여 한국 도서관을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의 분류전문위원회에서 개발한 십진분류법이다. KDC가 개정될 때마다 각 학문 분야별 주요 십진분류법과의 비교 분석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2013년에 KDC 6판이 발간된 후, 디자인학과 약학, 체육학 분야의 연구가 나왔고 앞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 대한 유사 연구가 진행될 것이다.

KDC 6판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건축학 분야에 대한 학문분류체계의 통합이다. KDC 5판에서 건축학은 600 예술 아래에서 610으로 전개되었던 건축술과 500 기술과학 아래 540에 전개되었던 건축공학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러나 KDC 6판에서는 건축학을 540 '건축, 건축학'으로 통합·전개하였다. 이는 KDC 5판을 사용하던 도서관에서 6판을 도입할 경우 도서관의 기존 분류체계를 흔들만한 큰 변화이다. 그러므로 건축학 분야에 대한 KDC 5판에서 6판으로의 변화를 짚어보고, 다른 주요 십진분류법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KDC 6판 건축학 분야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1 연구의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KDC 6판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건축, 건축학'의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KDC 5판과 6판을 먼저 비교한 후, 주요 십진분류법과도 대조하여 6판에서의 개정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건축학 분야 분류 전개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KDC 5판과 6판의 건축학 분야의 비교를 통해 분류 전개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주요 문헌분류표인 DDC 23판(2011)과 NDC 신정9판(1995), UDC(2005)의 건축학 분야 분류 항목 및 전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KDC 6판의 건축학 분야 개정 부분과 해당 부분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이러한 개정이 KDC를 이용하고 있는 도서관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1.2 선행연구

선행연구는 크게 건축학 분야의 주제 전개에 대한 분석 연구와 KDC 6판에 대한 비교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건축학 분야의 주제 전개에 대한 연구는 윤춘섭(1995, 1999, 2001, 2002), 김연례(2009)와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2013)에 의해 꾸준히 진행되었다. 윤춘섭(1995)은 KDC가 국내 대부분의 공공도서관과 여러 대학도서관, 건축 전문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 관련 분야의 개정에 건축전문가들이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KDC의 건축 분야 활용 실태를 살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어 윤춘섭(1999)은 1996년에 발간된 KDC 4판에서 540 건축공학 분야를 분석하여 그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4판

은 항목이 이전보다 세분되었으나, DDC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번역상의 오류로 원래 의미와 달라진 부분이 있으며 건축 설비의 항목들이 기타 학문으로 분산된 점을 지적하면서 차후 KDC 개정에 건축전문가들이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 윤춘섭(2001)은 KDC 3판과 4판을 비교하고, DDC 21판의 항목을 연계 분석하여 610 건축술의 개선 방안을 새로이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윤춘섭(2002)은 인터넷 서점의 건축도서 분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형 인터넷 서점 두 곳과 건축도서 전문 서점 두 곳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분류구조와 항목별 도서수를 확인하여 분류정확률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비체계적이고 부정확한 건축도서의 분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술과 건축공학을 하나로 보는 사회적 인식의 재고와, 점차 변화하는 건축학 관련 학문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건축정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김연례(2009)는 KDC 5판의 개정에 맞춰 KDC 4판과 KDC 5판의 건축공학분야를 비교분석하였으며, DDC와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미국국회도서관분류표)의 항목,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연구분야 분류체계를 추가 분석하여 KDC 5판의 건축공학분야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2013)은 문헌분류 전문가와 건축학 전문가의 협업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KDC, DDC, NDC, 학술연구분야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의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KDC 5판에서 540 건축공학과 610 건축술을 통합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건축술 이용자가 건축공학 역시 함께 이용하고 있

으므로 두 분야를 통합하고 학분 분야에서 비중이 높고 관련 도서가 많은 건축사 항목을 비중 있게 전개하며, 세부 전개가 부족한 건축공학 내 여러 분야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KDC 6판의 타 분야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로, 김수정(2013)은 KDC 6판의 디자인학 분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 KDC, DDC, LCC, NDC를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에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1』을 이용하여 KDC 5판을 기준으로 각 분야별 장서수를 확인하여 출판량이 집중된 디자인 이론분야와 디자인 응용분야에 세목을 추가 전개하였고, 디지털 디자인과 관련된 항목을 004.76의 멀티미디어 응용에 추가하였으며, 응용분야의 저작 분류를 위해 주기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정옥경, 이장익, 최정희(2013)는 KDC 6판의 약학 분야 분류항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약학 분야의 변천을 KDC 약학 분야에서 살펴보고, DDC, NLMC(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분야 분류표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DC 6판에 나타난 약학 분야의 용어 오류와 오기를 지적하고 분류항목의 재배치 및 추가 전개를 제안하였으며 최신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희진과 김정현(2013)은 KDC 6판을 중심으로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체육학의 학문적 체계를 분석하고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등 연구분야 분류체계와 DDC, LCC, NDC의 문헌 분류체계와 비교한 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

의 체육학 분야 자료 수와 주제어를 추출·분석하였다. 그 결과 KDC의 분류체계는 스포츠 경기 위주로 전개되어 분과학문분야에 대한 분류항목이 부족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서 692(체육학, 스포츠)로 시작하는 서지가 전체의 59.2%로 쏠려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곽철완(2014)은 도서관 분류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는데, KDC에 관한 연구는 크게 학문 분야별 분류체계를 장서량, 일반 분류체계, 특정 학문의 분류체계로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KDC 수정 전개안을 제시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KDC는 개정될 때마다 학문별 분류체계에 관한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건축학 분야 분류체계 분석은 건축 전문가와 문헌분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이루어졌다. 하지만 6판으로 개정된 후, 건축 분야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6판에서 달라진 부분을 DDC, NDC, UDC의 해당 분야와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6판 적용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KDC의 건축학 분야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2. 건축학 및 분류의 개념

2.1 건축학의 정의

건축 혹은 건축학에 대한 개념은 다양한 형태로 기술된다. 브리태니커 온라인 한국어판

(<http://preview.britannica.co.kr/>)에서는 건축학을 나타내는 항목을 'art of architecture'로 쓰고 있다. 그리고 이를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요구와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예술, 또는 그 기술'로 설명하여 미학적 요인과 기술적 해결책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것으로 보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에서는 '건물을 설계, 건립, 유지하기 위한 이론과 기술적 체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건축학을 정의하며, 발생시초부터 기술과 예술의 종합체로 성립되어 왔다고 설명하였다. 두산세계대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에서는 건축학을 '건축물의 설계·건축·유지 등을 위한 이론과 기술체계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건축공학을 '건축에 관한 구조·재료·계획·공법·역학·환경문제 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며 건축구조·건축환경계획·건축설비의 분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브리태니커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건축학을 예술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로 크게 나누고 있지만 두산 세계대백과사전은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의를 내리고 건축공학을 건축학의 하부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2.2 분류의 정의

분류는 다양한 매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료를 유사한 것과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분류의 목적은 소장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자료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문헌 분류체계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구조를 반영하며,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시대와 함께 해당 분야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과정에서 분류의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변경하면, 새로운 판을 적용할 때 도서관에서는 기존 자료를 재분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헌 분류는 학문 변화의 반영과 분류기호의 보존성이라는 두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3. 주요 십진분류표 건축학 분야 분류항목 전개

3.1 DDC의 건축학

DDC는 아라비아 숫자와 연계하여, 구두점 앞 세 자리와 그 뒤의 숫자로 주제에 관한 분류 기호를 나타내는 십진식 분류표이다. DDC는 주제별로 분류기호를 열거하였으나 본표의 분류 기호에 여섯 개의 보조표를 추가 합성하여 확장 전개할 수 있다. 1876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신판은 2011년에 전체 4권으로 출간된 23판이다. DDC의 분류체계는 초판이 발간될 당시의 시대적 조류를 따라 학문에 의한 주제 분류를 하고 있으며, 000 총류를 제외한 아홉 가지의 학문분야가 이에 해당한다.

DDC에서 건축학은 600 기술과학 아래의 'Construction of buildings'와 700 예술 아래의 'Architecture'로 나뉜다. 전자는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건축실무(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건축재료나 목적에 따른 구분(Con-

struction in specific types of materials and for specific purpose)', '목건축(Wood construction)', '지붕마감(Roof covering)', '설비(Utilities)', '난방(Heating)', '환기 및 공기조화(Ventil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ing)', '마감(Detail finishing)'을 다루고 있다. 후자는 기초나 벽 등의 건물 구조와 구조적 요소를 앞에서 다루며, 그 뒤에는 시대적 구분에 따라 고대 건축물, 중세 시대의 건축물, 근대의 건축물을 전개하고, 용도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정부, 상업시설, 무역 시설 및 농업설비를 다룬 건물과 종교적 건물, 교육이나 연구 목적의 건물, 주거용 건물을 분류하며 마지막은 구조적이고 세부적인 부분의 설계와 장식(Design and decoration of structures and accessories)을 다룬다.

이를 정리하면 DDC에서 예술 분야의 건축학은 완성품인 건축물 자체를 다룬 문헌을 대상으로 하며, 기술공학 분야의 건축학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문헌을 다룬다고 할 수 있다. 즉, DDC는 앞서 다룬 브리태니커의 건축학 정의에서처럼 기술과 예술을 분리하여 분류하고 있다(〈표 1〉 참조).

3.2 NDC의 건축학

NDC는 현재 신정9판까지 발행되어 있으며 발행 시기가 1995년으로 상당히 오래되었다. 현재 일본도서관협회에서는 2014년 내에 신정10판을 출간하는 것을 목표로 공청회 등의 준비를 진행 중이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따라서 타 분류표와 개정년도가 상당히 차이나지만 가장 최신판에 해당하는 신정9판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1〉 DDC 23판(2011) 건축학 관련 분야 분류항목명

DDC 23판(2011) 건축공학 분야의 항목명	DDC 23판(2011) 건축분야의 항목명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	720 Architecture
691 Building materials	721 Architectural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
692 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722 Architecture from earliest times to ca.300
693 Construction in specific types of materials and for specific purpose	723 Architecture from ca.300 to 1399
694 Wood construction	724 Architecture from 1400
695 Roof covering	725 Public structures
696 Utilities	726 Buildings for religious and related purposes
697 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ing	727 Building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698 Detail finishing	728 Residential and related buildings
	729 Design and decoration of structures and accessories

〈표 2〉 NDC 신정9판(1995) 건축학의 분류항목명

NDC 신정9판(1995) 건축학 분야의 항목명	
520 건축학	525 건축계획·시공
521 일본의 건축	526 각종의 건축
522 동양의 건축, 아시아의 건축	527 주택건축
523 서양의 건축, 그외의 양식 건축	528 건축설비, 설비공학
524 건축구조	529 건축의장·장식

NDC의 건축은 500 기술공학 아래에 놓여있으며 DDC와는 달리 예술 분야에는 전개되지 않았다. 520 건축학 아래에서는 일본의 건축, 동양의 건축, 서양 및 그 외 지역의 건축 등 건축물에 대한 분류를 앞에 전개했으며, 그 뒤에 공학적 측면에서 건축 구조와 건축설계·시공, 병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특정 건물, 주택건축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주택의 설비, 건축 의장 양식을 다루고 있다. 건물과 건축공학을 나눈 DDC와는 달리 NDC는 건축학을 통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예술적 측면에 해당되는 건축술 부분도 분류구조 말미에 함께 넣고 있다.

3.3 UDC의 건축학

UDC는 1894년에 DDC 5판을 바탕으로 국제서지를 편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국제십진분류표이다(이창수, 2009). 첫 판이 나온 후, 각 국가별로 다양한 버전이 개발되었으나 가장 최근 판은 British Standard Institution에서 2005년과 2006년에 발행한 표준판(standard edition) 3판이다. 표준판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인 보조표 및 본표는 2005년에, 색인에 해당하는 제2권은 2006년에 출간되었다. UDC는 본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조표를 조합

〈표 3〉 UDC 표준3판(2005) 건축학 분야 분류항목명

UDC 표준3판(2005) 건축공학 분야의 항목명	UDC 표준3판(2005) 건축 분야의 항목명
69 Building(Construction) Trade	72 Architecture
691 Building materials	721 Buildings generally
692 Structural parts and elements of buildings	725 Public, Civil, Commercial, Industrial buildings
693 Masonry and related building craft	726 Religious Ecclesiastical architecture
694 Timber construction, Carpentry, Joinery	727 Buildings for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purposes
696 Equipments, Services, Installations in buildings	728 Domestic architecture, Housing, Residential buildings
697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of buildings	
698 Finishing and decoration trades	

할 수 있으며 DDC나 KDC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조합이 가능해 확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UDC 본표의 구조는 DDC와 유사한데, 의미 없는 0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69에 ‘건축업, 건축재료, 건축 실제와 방법(Building trade, building materials, building practice and procedure)’을 다루고 있으며 72에 ‘건축술(Architecture)’을 분류하고 있다. 69는 앞부분에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s)’, 벽, 지붕, 마루 등 ‘건물의 구조적 요소와 부분(Structural parts and elements of buildings)’을 다루고 그 뒤에 ‘석조건물(Masonry and related building craft)’과 ‘목구조(Timber construction)’, ‘설비, 서비스, 설치(Equipments, services, installations in buildings)’, ‘난방과 환기 및 공기조화(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of buildings)’를 다루고 마지막에 ‘마감과 장식(Finishing and decoration trades)’을 놓고 있다.

72 건축물에서는 공공건물(Public, civil, commercial, industrial buildings)과 종교건물, 교육 및 연구 목적 건물을 다루고 뒤에서 주거용 건물을 다루고 있다. 즉, 건물의 용도에 따라 구

체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는 보조표의 조합이 필요하다(〈표 3〉 참조).

4. 주요 심진분류표별 비교분석

4.1 KDC 5판과 6판의 비교

KDC 5판은 2009년에, 6판은 2013년에 출간되었다. 4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개정되어 출간되었는데, 특히 건축학 부분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KDC 5판의 건축학은 DDC의 학문분류에 따라 ‘건축공학’과 ‘건축술’로 나뉘어 있었다. KDC 3판(1999)과 4판(2000)의 건축학 분야 분석을 한 윤춘섭은 건축술과 건축공학을 서로 다른 학문 단위(윤춘섭, 2002)로 보고 있기 때문에 KDC 5판에서 건축학 관련 문헌이 분리되어 분류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2013)의 연구에서는 건축공학과 건축술은 건축학이라는 같은 학문 분야의 이용자가 이용하기 때문에 양쪽의 도서를 한 곳에 모아 분류하는 것이 옳다

고 주장하고, 양쪽의 분류를 통합하는 분류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KDC 6판은 540의 건축공학 안에 610의 건축술을 흡수 통합시키는 형태로 양쪽의 분류 체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KDC 6판의 개정 내용은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2013)의 제안을 상당 부분 반영하였다.

〈표 4〉와 같이 KDC 6판 건축학 분야의 명칭은 KDC 5판의 540 '건축공학', 610 '건축술'이 통합되면서, 540 '건축(建築), 건축학(建築學)'으로 바뀌었다. 강(綱)의 항목명이 변경되면서 540.1의 '건축구조 일반'도 '건축계획'으로 변경되고 540.2의 '건축활동'은 542.1로 이동했다. 5판 542 '건축실무'의 세목인 '건축제도', '건축제도'는 540.1 '건축계획' 아래로 이동했다. 542는 '건축실무'에서 '건축 시공 및 적산'으로 항목명이 바뀌었고, 542.1-.3의 변경 외에 542.9 항목명이 '기타 건축실무'에서 '기타 건축시공'으로 바뀌며 하위에 안전대책과 유지보수가 추가되었다.

543은 '건축구조의 유형'에서 '구조역학 및 건축 일반구조'로 항목명이 수정되었고, 이에 따라 543.1이 '기초공학(토질)'에서 '구조역학'으로 변경되고 이전 항목인 '기초공학(토질)'은 하

위개념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구조물 분석'과 '파손과 파괴'가 그 뒤에 추가 전개되었다.

544의 '친환경 건축'은 543.99에 놓였던 '특정 목적을 위한 건축'까지 포괄하는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 건축'으로 변경되었고, 5판의 544 '친환경 건축'은 그 아래 544.1로 이동했다. 따라서 5판에서 '친환경 건축' 하위에 있던 544.1 '설계 및 재료'와 544.2 '공법', 544.3 '유지관리', 544.4 '경제성'은 544.11-.14로 세분 전개되었다.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아래 '도난방지구조', '내화구조', '해충방지구조', '충격방지구조' 등 건축의 특수구조에 관한 항목명이 544.3.7에 추가 전개되었다.

545는 세목에서의 변경사항이 없으며, 546은 항목명 앞부분에 건축환경이 추가되어 '건축환경,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로 바뀌었고 이에 맞춰 5판에서 '급배수설비'였던 546.1은 '건축환경'으로 변경되었다. 그 아래에는 '열환경', '빛환경', '음환경'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급배수설비'를 비롯한 여러 설비들은 546.2부터 시작해 하나씩 뒤로 밀렸으나 5판의 546.5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546.5-.9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 547 역시 세목에서의 변동사항은 없다.

〈표 4〉 KDC 5판과 6판 건축 분야 비교: 540 건축 및 610 건축술의 전체 비교

KDC 5판(2009)	KDC 6판(2013)	KDC 5판(2009)	KDC 6판(2013)
540 건축공학 540.1 건축구조 일반 540.2 건축활동	540 건축(建築), 건축학(建築學) 540.1 건축계획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546.1 급배수설비 546.2 가스 설비 546.3 전기설비 546.5 증기(스팀) 파이프, 기구 546.6 온수파이프 및 기구 546.8 소방설비 546.9 기타 건축설비	546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 546.1 건축환경 546.2 급배수설비 546.3 가스설비 546.4 전기설비 546.5 증기(스팀) 파이프, 기구 546.6 온수파이프 및 기구 546.8 소방설비 546.9 기타 건축설비

KDC 5판(2009)	KDC 6판(2013)	KDC 5판(2009)	KDC 6판(2013)
541 건축재료 541.1 목재 541.2 석재 541.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541.4 요업제 및 접토제 541.5 시멘트 541.6 유리 541.7 철 및 강철구조 541.8 기타 건축용 금속재 541.9 기타 건축재료	541 건축재료 541.1 목재 541.2 석재 541.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541.4 요업제 및 접토제 541.5 시멘트 541.6 유리 541.7 철 및 강철구조 541.8 기타 건축용 금속재 541.9 기타건축재료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547.1 방열성 부분난방 547.2 공기난방 547.3 온풍난방 547.4 온수난방 및 배관작업 547.5 증기(스팀)난방 547.7 기타 난방방법 547.8 환기 및 공기조화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 547.1 방열성 부분난방 547.2 공기난방 547.3 온풍난방 547.4 온수난방 및 배관작업 547.5 증기(스팀)난방 547.7 기타 난방방법 547.8 환기 및 공기조화
542 건축실무 542.1 건축설계 542.2 건축제도 542.3 설계서 542.4 입찰 및 계약사무 542.5 노동, 시간, 재료의 견적 및 건축비 542.6 감리 542.8 건축시공, 공사 542.9 기타 건축실무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542.1 건축활동 542.4 입찰 및 계약사무 542.5 노동, 시간, 재료의 견적 및 건축비 542.6 감리 542.8 건축시공, 공사 542.9 기타건축시공	548 건축마감 548.1 도장작업 548.2 수성도료(도장) 548.3 목재의 마감손질 548.5 유리세공 548.6 도배 548.8 바닥마감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48.1 도장작업 548.2 수성도료(도장) 548.3 목재의 마감손질 548.5 유리세공 548.6 도배 548.8 바닥마감 548.9 인테리어
543 건축구조의 유형 543.1 기초공학(토질) 543.2 석재구조 543.3 벽돌구조 543.4 목구조 543.5 타일 및 테라코타 구조 543.6 블록구조 543.7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543.8 철골구조 543.9 기타 재료의 건축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543.1 구조역학 543.2 석재구조 543.3 벽돌구조 543.4 목구조 543.5 타일 및 테라코타 구조 543.6 블록구조 543.7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543.8 철골구조 543.9 기타 재료의 건축	549 각종 건물	549 각종 건물 549.1 궁전, 성곽 549.2 종교건물 549.3 공공건물 549.4 과학 및 연구용 건물 549.5 공업용건물 549.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9.7 주거용건물 549.8 기타 건물
544 친환경건축 544.1 설계 및 재료 544.2 공법 544.3 유지관리 544.4 경제성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544.1 친환경건축 544.3 도난방지구조 544.4 방화구조 544.5 내화구조 544.6 해충방지구조 544.7 충격방지구조 544.8 방수, 방습, 빛조절 구조 544.9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구조	610 건축술(建築術) 610.9 건축사	549 각종건물 540.09 건축사
545 건물 세부구조 545.1 벽체 545.2 기둥 545.3 지붕 545.4 천장 545.5 바닥 545.6 곡선구조 545.7 기타 건축요소 545.8 동양식세부구조 545.9 서양식 세부구조	545 건물 세부구조 545.1 벽체 545.2 기둥 545.3 지붕 545.4 천장 545.5 바닥 545.6 곡선구조 545.7 기타 건축요소 545.8 동양식세부구조 545.9 서양식세부구조	611 궁전, [묘사], 성곽 612 종교건물 613 공공건물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615 공업용건물 61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617 주거용 건물 618 기타 건물 619 장식 및 의장	549.1 궁전, 성곽 549.2 종교건물 549.3 공공건물 549.4 과학 및 연구용 건물 549.5 공업용건물 549.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9.7 주거용건물 549.8 기타 건물 548.9 인테리어

* KDC 5판의 굵은 글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 항목이며, 밑줄은 명칭이 변경된 부분임.

** KDC 6판의 밑줄은 5판과 항목이 달라진 부분임.

548은 '건축마감'에서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로 바뀌었다. 548.9에는 5판의 619에 분류되었던 '장식 및 의장'이 '인테리어'로 항목명이 바뀌어 이동되었다.

549 '각종 건물'은 전체 항목 중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이다. <표 4>와 같이 5판의 610 '건축술'은 하위에 목적별 건물과 구조를 놓았으나, 6판에서 강(綱)을 통합하면서 610 '건축술' 아래의 건축물 관련 문헌 분류는 모두 549 아래로 이동했다. 549의 항목명은 6판에서도 변하지 않았으며, 원래 세목이 없었기 때문에 611 '궁전, [묘사], 성곽'은 549.1로, 612 '종교건물'은 594.2로, 613 '공공건물'은 549.3으로 이동하는 등 611부터 618까지의 항목이 549.1에서 549.8로 이동하였다. 다만 619 '장식 및 의장'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548.9의 '인테리어'로 이동하였다.

549 '각종 건물'의 세목 이하를 살펴보면, KDC 5판 613.7 '교육용 건물'은 6판에서 549.37로 이동하며 항목명에 연구용 건물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594.4에도 '과학 및 연구용 건물'이 있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KDC 5판의 618 '기타 건물' 아래에 분류되던 묘지와 화장장은 6판에서 549.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아래로 이동하여 각각 594.68과 594.69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분류 이동은 묘지나 화장장이 최근에는 상업적 성격까지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중요한 변경은 KDC 5판 610.9 '건축사의 항목 이동 및 전개이다. 6판에서는 540.09로 이동했으며 원시, 고대, 중세, 근세 등 시대별 구분만 가능했던 5판과는 달리, 동서양의 건축사 모두 지역구분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4.2 DDC 23판과 KDC 6판의 비교

KDC의 건축학 분야는 DDC의 항목을 번역하여 그대로 사용한 부분이 많아서 KDC 5판까지는 DDC와 유사한 구조로 전개되었으며 항목도 비슷한 것이 많았다. 그러나 KDC 6판은 <표 5>와 같이 DDC 23판과 다른 전개를 하고 있다.

KDC의 540 '건축, 건축학'은 DDC의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에 해당하지만 분류표에 나타난 항목명을 비교하면 상당히 다르다. KDC 6판의 540.1은 6판에서는 '건축계획(Architect's planning and design)'으로 이에 대응하는 DDC의 690.1 '구조적 요소(Structural elements)'와 항목명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러나 541 '건축재료'는 KDC 6판과 DDC 23판이 유사하게 전개되었다. DDC 23판의 690.2 '건축활동(General activities of buildings)'은 KDC 6판의 542.1 '건축활동'에 해당하여 항목의 구조가 다름을 보여준다. 또한 542 '건축실무'의 세목 중 '입찰 및 계약사무'와 '감리'는 DDC의 세목에는 없으며, DDC 692.1 '설계와 도면(Plans and drawings)' 항목에 대응하는 542.1의 '건축설계', 542.2의 '건축제도'는 모두 540.1의 '건축계획' 아래로 이동했다.

KDC의 543은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로, DDC 693의 '건축재료나 목적에 따른 구분(Construction in specific types of materials and for specific purpose)'과는 순서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중 DDC 693.8의 '특정 목적 건축(Construction for specific purpose)'은 KDC 6판에서 544에 포함되었다.

<표 5> DDC 23판, UDC 표준 3판, NDC 9판, KDC 5판, KDC 6판의 건축학 분야 비교

DDC 23판(2011)	UDC 표준 3판(2005)	NDC 신정9판(1995)	KDC 5판(2009)	KDC 6판(2013)
690 Construction of buildings	69 Building(Construction) Trade	520 건축학	540 건축공학	540 건축(建築), 건축학(建築學)
691 Building materials	691 Building Materials	521 일본의 건축	541 건축재료	541 건축재료
692 Auxiliary construction practices	692 Structural parts and elements of buildings	522 동양의 건축, 아시아의 건축	542 건축실무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693 Construction in specific types of materials and for specific purpose	693 Masonry and related building craft	523 서양의 건축, 그외의 양식 건축	543 건축구조의 유형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694 Wood construction	694 Timber construction	524 건축구조	544 친환경건축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695 Roof covering		525 건축계획·시공	545 건물 세부구조	545 건물 세부구조
696 Utilities	696 Equipments, Services, Installations in buildings	526 각종의 건축	546 건축설비, 배관 및 파이프의 부설	546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
697 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ing	697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of buildings	527 주택건축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공학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
698 Detail finishing	698 Finishing and decoration trades	528 건축설비·설비공학	548 건축마감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29 건축의장·장식	549 각종 건물	549 각종 건물
720 Architecture	720 Architecture		610 건축술(建築術)	
721 Architectural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	721 Buildings generally		611 궁전, [묘사], 성곽	549.1 궁전, 성곽
722 Architecture from earliest times to ca.300			612 종교건물	549.2 종교건물
723 Architecture from ca.300 to 1399			613 공공건물	549.3 공공건물
724 Architecture from 1400			614 과학 및 연구용건물	549.4 과학 및 연구용건물
725 Public structures	725 Public, Civil, Commercial, Industrial buildings		615 공업용건물	549.5 공업용건물
726 Buildings for religious and related purposes	726 Religious Ecclesiastical architecture		61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549.6 상업, 교통, 통신용건물
727 Buildings for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727 Buildings for educational scientific, cultural purposes		617 주거용 건물	549.7 주거용 건물
728 Residential and related buildings	728 Domestic architecture		618 기타 건물	549.8 기타 건물
729 Design and decoration of structures and accessories	729		619 장식 및 의장	548.9 인테리어

* 굵은 글씨는 KDC에 완벽하게 대응하는 항목이 없는 것임.

544는 KDC 6판과 DDC 23판이 가장 차이나는 부분으로 DDC에서는 694에 목공과 대목(Carpentry)을 포함한 '목건축(Wood construction)'으로 다루고 있으나, KDC는 5판부터 543의 하부에 분류되어 건축 재료에 따른 구분 아래에 놓았다. 대신 KDC는 544에 건축의 신조류를 나타내는 친환경건축을 삽입했으며, 6판에서는 도난방지나 방화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을 544에 함께 분류하고 있다.

545도 KDC와 DDC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부분인데, DDC 695는 지붕마감(Roof covering)이지만 KDC에서는 지붕을 포함하여 벽체, 기둥, 천장, 바닥 등의 건물 세부구조를 이곳에 분류하고 있으며, DDC는 지붕을 제외한 구조의 경우 721 '건축재료 및 구조적 요소(Architectural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 아래에 분류하고 있다.

546은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이란 항목명을 사용하여 DDC의 696 설비(Uilities)와 달라 보이지만 세목이 급배수 설비나 가스설비 등의 설비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다만 5판과 달리 6판에서는 546.1에 '건축환경'을 신설하였으며, 이는 DDC에 없는 항목이다. 또한 DDC는 '상수도설비(Plumbing)'와 '배관공사(Pipe fitting)'를 분리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두었으나 KDC는 급배수설비와 가스설비 등 설비의 종류로만 분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그리고 전기설비는 DDC의 건축학 아래가 아니라 DDC 621.3의 '전기학' 아래, 소방설비는 DDC 628.92 '소방공학'(위생공학 하부주제) 아래에 분류된다. 즉, KDC 4판 540 건축공학에 대한 윤춘섭(1999)의 지적처럼 DDC에서는 일부 건축공학 설비가 건축학 분야가 아

닌 관련 분야로 문헌이 분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은 DDC의 69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Heating, ventilating, air-conditioning engineering)'과 항목명이 동일하다. 다만 DDC에서는 697.8에 '굴뚝과 연통'을, 697.9에 '특정 종류의 건물에 대한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KDC 6판에서는 굴뚝과 연통(연도)는 547.07 '난방설비'의 포함 주기에 있다.

548 '건축마감'은 DDC의 698 'Detail finishing'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KDC 6판의 548.9 '인테리어' 항목에서 차이가 난다. 5판은 DDC 698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6판에서 610 '건축술'을 통합하면서 619의 '장식 및 의장'이 548.9의 '인테리어'로 이동되었다.

549 '각종 건물'에 대한 DDC와의 비교 분석은 DDC 720과 비교해야 한다. KDC 5판의 610 '건축술'과 DDC 720의 '건축(Architecture)'은 같은 예술(Art) 아래 분류되어 있지만 전개 방향은 사뭇 다르다. 5판의 610 '건축술'은 건축 완성품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611부터 618까지 전개했고, 619에는 그 장식과 의장을 다루었다. 그러나 DDC의 720은 721부터 729에 '건축의 특정 양상(Specific aspects of architecture)'을 다루었으며 721에는 그 중에서도 건축의 부분적 요소들인 벽체, 기둥, 지붕, 마루 등을 다루었다. KDC 5판에서는 545 '건물 세부구조' 아래 전개되었으며, 이는 6판에서도 동일하다.

DDC 722부터 724까지는 시대별로 건축물을 세분하였으며, 725부터 728은 특정 종류의 건물, 729는 장식 및 의장을 다루었다. 722에서는 고

대의 건축물을 다루면서 지역별로 세분하였으므로 동아시아나 이집트, 중동, 로마, 그리스 등의 고대 건축물을 분류하기 용이하다. KDC 6판에서는 건물의 종류별로 구분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고대 이집트의 종교시설과 공공시설을 함께 다룬 문헌처럼 시대별로 건축물을 다룬 도서는 상위 분류인 549 각종 건물에 분류해야 한다. 건축사에 분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으나, 540.09 아래에 전개된 각 시대의 건축사는 분류번호가 상당히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고딕건축의 경우, 5판에서는 610.92035에 분류하였으나 6판에서는 540.092035로 한 자리 늘어났다. 그러므로 분류기호의 단순성, 간결성을 살리면서 주제를 어떻게 해야 최대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4.3 NDC 신정9판과 KDC 6판의 비교

〈표 5〉와 같이 NDC는 500 기술과학 아래에 520 '건축학(Architecture, Building)'을 두었으며, 영문명에서 보이듯이 건축공학과 건축물을 한 곳에 모아 분류하였다. 그러나 KDC 6판의 구조와는 달리, 521-523에는 국가별 건축을 전개하고 그 뒤에 524 '건축구조', 525 '건축계획, 시공', 528 '건축설비, 설비공학'을 놓고 526에는 '각종의 건축', 529에 '건축의장장식'을 놓고 있어 건축공학과 건축술이 섞여 있다.

520 '건축학'의 바로 아래에는 520.7에 연구법, 지도법 등을 넣고 있어 조기표를 적용한 KDC와 비슷한 것 같지만, 520.9에 주택산업을 함께 분류한다는 지시사항과 함께 '건축업'이 있다. KDC 6판에서는 542.1 '건축활동' 아래에 '건축업의 면허와 등록절차를 포함한다.'는 포함주기를 넣고

있다.

KDC가 건축학의 첫 번째 목인 541과 691에 '건축재료'를 넣고 있는데 반해, NDC는 521에 '일본의 건축'을 전개하였으며 그 아래에 시대별 구분을 삽입하였다. 522는 '동양의 건축'이며 523은 '서양의 건축'으로 건축물을 건축학 앞부분에 배치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또한 '일본의 건축'은 세목에서 시대 구분을 하고 있는데 반해, '동양의 건축물'과 '서양의 건축물'은 세목에서 지리 구분이 가능하다는 주기를 달아 놓았다. 일본의 건축물 중에서도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은 시대 구분과는 별도로 세목을 삽입하여, 521.8에 '각종의 일본건축, 국보·중요 문화재의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대표적인 건축물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522 '동양의 건축물'에서는 522.1에 한국을 놓고 522.2에 중국을 놓았다는 점도 KDC의 지리구분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이다.

NDC의 건축 역학은 524 '건축구조'부터 전개된다. 건축구조에서는 세목으로 '구조공학', '건축재료', '기초', '블록구조'를 전개하고 그 뒤에 524.5에서 524.7까지 '목구조', '철골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등 재료에 따른 건축구조를 다루었다. 524.8은 '각부구조'를, 524.9에는 '방재구조'를 다루고 있어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에서 건축 구조의 종류를, 545의 '건물 세부구조'에서 각부구조를 다루고,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에서 방재구조를 분리하여 다루는 KDC보다 훨씬 간략하게 다루고 있다.

525는 건축계획, 시공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KDC 542의 '건축 시공 및 적산'과 유사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다만 525.1 '건축계획·설계' 뒤에 나오는 525.2 '규구술(規矩術)'은 KDC를

포함한 다른 십진분류법에는 없는 독특한 항목이다. 규구술은 건축자재를 가공할 때 꼭척이라는 옛 단위로 처리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NDC에서는 일본 전통 가옥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 항목으로 다루고 있음을 나타낸다. 525의 세목은 '건축계획·설계', '규구술', '사양, 적산, 건축비', '건축공사, 가공각론', '시공기계', '건물의 유지·관리'의 순으로 전개되어 입찰, 견적 및 건축비, 감리, 건축 시공 공사, 기타 건축시공의 순으로 전개되는 KDC와는 조금 다르다. NDC에는 감리가 빠지는 대신 건물의 유지·관리가 추가되었으며 KDC에서 건물의 유지·관리는 주거학 쪽에 분류하고 있다.

526은 각종 건물을 분류하며, 역사적 건축물은 521에 분류하고 여기에는 현대 건축물을 분류하도록 하였다. 주기에 강목표(분표)를 이용하여 분류하라고 기술했으며, 예시로 박물관(.06), 신문사(.07), 사원(.18), 관공서(.31), 학교 대학(.37) 등을 기술하여 분표의 목에 해당하는 주제와 관련된 건물을 세분 전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KDC 6판의 549는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분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DC와 다르다. 또 일본의 건축물만 시대구분을 하고 동양과 서양의 건축물은 지리 구분외의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다는 점도 KDC와는 다르다.

527 주택 건축은 KDC 545의 건물 세부구조와 비슷하게 전개할 것 같으나, 실제 내용은 전혀 다르다. NDC 527은 주택의 각 부분을 상술하고 있으며 527.1부터 527.6까지는 주택의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세목을 나열했다. 527.1은 '설계, 부지, 방 배치'이며, 527.2는 '현관과 큰방, 복도, 계단', 527.3은 '부엌, 식당, 다용도실'을 다룬다. 이처럼 앞에서는 주택의 세부 구조를 다

루고 그 뒤의 527.7부터 527.9까지는 방갈로, 집합 주택, 기숙사를 전개하였다. KDC에서는 주택의 세부구조를 549.7 '주거용건물' 아래에서 전개했으며, 595.3 '주택관리 및 가정설비'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528은 건축설비와 설비공학이며 KDC 546의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과 유사하다. 하지만 KDC가 급배수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증기파이프, 온수파이프, 소방설비 순으로 전개하고 있는 반면 NDC는 위생설비, 공기조화(난방, 냉방), 굴뚝 연통, 에너지 설비, 기계운반설비, 소방설비, 주방설비 순으로 전개하고 있다.

529는 건축의장 장식으로서 KDC 6판의 548.9에 해당하나 그 아래의 세목은 없다.

4.4 UDC 표준 3판과 KDC 6판의 비교

〈표 5〉와 같이 UDC 분표의 전체적인 구조는 DDC와 유사하기 때문에 DDC와 UDC를 비교한 뒤 차이나는 부분을 뽑아 KDC와 추가로 비교하였다.

UDC의 691은 DDC와 마찬가지로 건축재료(Building material)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중 691.8은 '간단한 장치와 도구(Simple units, Builders' hardware)'를 다루고 있다. DDC나 KDC에서는 세목 이하에 등장하거나 없는 내용인데, 이것이 건축 장치나 도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 건물을 구성하는 단위도 포함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KDC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공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를 공장에서 각 단위별로 생산하고 결합시켜 주택을 조립 건축하는 방식도 새로 도입되고 있으므로 충분히 세목으로 들만한 가

치가 있다.

UDC 692 '건물의 구조와 요소(Structural parts and elements of buildings)'는 DDC의 721 '건축 재료와 구조적 요소(Architectural materials and structural elements)'에 해당한다. DDC는 692에서 건축실무를 다루며 KDC에서는 542 '건축시공 및 적산'에 해당하지만 UDC에 대응하는 강목은 없다.

693 '석조건축(Masonry and related building craft)'은 DDC와 유사하나 694의 '목조건축(Timber construction, carpentry, joinery)'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UDC는 그 아래 세목을 694.3의 '임시 목구조(Temporary timber construction)', '튼튼한 목구조(Heavy timber construction)'와 '가벼운 목구조(Light timber construction)' 등 구조의 형태에 따라 전개했다. DDC는 목조건축의 구조를 짜는 대목(Carpentry)과 장식을 하는 소목(Joinery)으로만 크게 나누고 있으며 UDC처럼 목구조를 세목에서 전개하지 않았다.

UDC 696의 설비는 DDC 696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개하여 배관, 증기배관, 온수공급을 전개하였으며, KDC에서처럼 전기설비도 함께 전개했다. 그 뒤 696.5에는 KDC나 DDC에는 없는 '압축공기(Pneumatic, compressed air and vacuum installation)'에 대한 항목을 넣고 있다. 697 '난방(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of buildings)' 부분은 DDC와 항목 순서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개별난방, 중앙난방과 온수난방, 증기난방 등 난방 방식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698은 마감 및 장식을 다루고 있으며 DDC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건축물을 다루는 72 Architecture는 DDC나

KDC와는 다른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KDC 5판에서는 610에 목적 등에 따른 다양한 건물을 분류하였으며 이는 KDC 6판의 549로 이동하였다. DDC는 721에서 건물 구조를 다루고 722-724는 시대별 건축물, 725-728에서 목적에 따른 건축물을 다루고 있다. UDC는 721-724의 항목이 없으며, 725에는 KDC의 549.3-549.7에 해당하는 공공건물, 상업건물(Public, Civil, Commercial, Industrial buildings)을 넣었다. 대신 725의 항목 뒤에는 본표의 분류기호를 덧붙여 구체적인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의 각종 건물들을 폭넓게 전개할 수 있다. 726은 종교건물, 727은 교육, 학문, 문화 목적의 건물, 728은 주거용 건물을 분류한다. 729는 공기호이며, DDC 729의 인테리어 부분은 698로 분류한다.

4.5 시사점 및 개선안

KDC 5판, KDC 6판과 주요십진분류표의 건축학은 분류 전개 방식이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KDC 5판과 DDC는 건축공학과 건축물을 분리하여 다루고 있다. 이는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의 여러 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과 건축물 자체의 예술적인 측면을 분리하여 보는 건축에서 유래한 것이다.

둘째, NDC 신정9판과 KDC 6판은 건축학을 기술과학 아래 통합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는 건축공학 또는 건축물과 관련된 문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건축공학과 건축물에 관한 자료를 함께 참고하는데 근거한다.

셋째, KDC 5판과 6판의 건축학은 상당한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DDC의 전개방식을 따

랐던 5판과는 달리 6판에서는 예술분야의 건축물 관련 항목을 540에 흡수 통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건축학의 예술적 요소보다는 기술 측면을 강조하여 건축학의 학문적 구조를 통합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넷째, NDC 신정9판은 자국의 건축을 목(division) 수준에서 전개했다. 한국의 건축물은 6판에서는 549의 각종 건물 아래에 세목으로 세구분하여 전개하거나 540.09 '건축사' 아래에 전개하므로 분류기호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 결과, 이용자들에게 가독성이나 인식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NDC에서는 규구술 등 여러 세목에서 자국의 건축학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으나, KDC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건축학을 다루고 있고, DDC의 전개 방식에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표 6>과 같이 현재 540.09에 전개되는 '건축사' 항목을 540.9로 한 단계 올려 전개하는 것을 제안한다.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2013)은 요목 단계에서는 540 '건축학' 바로 아래인 540.9에 '건축사'를 놓았다. 그러나 세목단계의 수정에서 541의 건축계획에 앞서 고려해야하는 공간론, 건축심리, 건축색채 등의 건축학 관련 이론을 추가 전개하기 위해 540.1에 건축계획을 신설하였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KDC 6판에서는 540 아래 '540.01-.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는 주기를 넣고 540.09에 건축사를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축계획'의 항목명을 541 '건축이론'으로 바꾸어 그 안에 포함시키고 KDC 6판의 전개를 유지한 채, 540.9에 건축사를 전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또한 초가집이나 기와집을 포함한 한옥, 즉

한국 전통 건축물에 대한 분류는 별도의 목에 배치한 NDC의 사례처럼 541-549까지 이어지는 건축학의 구조에서는 별도의 목으로 두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549 '각종 건물' 아래의 549.1 '궁전, 성곽'에 '한국 전통 건축'을 부여하고, 한국 전통 건축물의 한 분야인 창경궁, 경복궁 등의 궁궐과 남한산성, 북한산성, 서울성곽 등의 성곽은 549.1 아래에, 동서양의 궁전이나 성곽은 그 용도에 따라 549.3 '공공건물', 549.7 '주거용건물', 549.8 '기타건물'에 분류할 수 있다. 실제 DDC의 경우 궁전에 해당하는 palace는 728.8의 '크고 정교한 개인 주택(Large and elaborate private dwellings)'에 분류하고 있다. 다만 DDC 728 '주거용건물'은 저렴하고 작은 것부터 차츰 큰 건물을 배치하고 있으나 KDC 549 '각종건물'은 궁궐과 성곽이 앞에 놓이고 주거용주택이 뒤에 놓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 전통 건축'은 궁궐, 성곽을 앞에 놓고 그 뒤에 한옥을 놓아 그 아래 황토집, 초가집, 기와집 등 한국 전통주택에 대한 문헌 분류를 제안한다.

다섯째, KDC 6판에서는 주택의 공간 배치와 설비를 549.7 '주거용 건물' 아래와 595.3의 '주택관리 및 가정 설비'에서 같이 다루고 있다. 원래 '주거용 건물' 아래의 공간 분류는 NDC 527의 '주택건축'과 비슷한 전개를 따르고 있는데, DDC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대신 DDC에서는 640 '가정 및 가족 관리(Home & family management)' 하위의 '주거 및 가정설비(Housing and household equipment)', 즉 건축학이 아닌 주거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KDC는 DDC와 NDC 양쪽의 영향을 모두 받은 셈이다.

<표 6> KDC 6판의 수정 전개안

KDC 6판(2013)	KDC 6판 수정전개안	KDC 6판(2013)	KDC 6판 수정전개안
540 건축, 건축학 540.01-.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540.09 건축사 540.1 건축계획	540 건축학 540.1 건축이론 건축계획을 포함한다. 540.9 건축사	545 건물 세부구조 545.1 벽체 545.2 기둥 545.3 지붕 545.4 천장 545.5 바닥 545.6 곡선구조 545.7 기타 건축요소 545.8 동양식세부구조 545.9 서양식세부구조	545 건물 세부구조 545.1 벽체 545.2 기둥 545.3 지붕 545.4 천장 545.5 바닥 545.6 곡선구조 545.7 기타 건축요소 545.8 동양식세부구조 545.9 서양식세부구조
541 건축재료 541.1 목재 541.2 석재 541.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541.4 요업제 및 점토제 541.5 시멘트 541.6 유리 541.7 철 및 강철구조 541.8 기타 건축용 금속제 541.9 기타건축재료	541 건축재료 541.1 목재 541.2 석재 541.3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541.4 요업제 및 점토제 541.5 시멘트 541.6 유리 541.7 철 및 강철구조 541.8 기타 건축용 금속제 541.9 기타건축재료	546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 546.1 건축환경 546.2 급배수설비 546.3 가스설비 546.4 전기설비 546.5 증기(스팀) 파이프, 기구 546.6 온수파이프 및 기구 546.8 소방설비 546.9 기타 건축설비	546 건축 환경, 설비, 배관 및 파이프 부설 546.1 건축환경 546.2 급배수설비 546.3 가스설비 546.4 전기설비 546.5 증기(스팀) 파이프, 기구 546.6 온수파이프 및 기구 546.8 소방설비 546.9 기타 건축설비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542.1 건축활동 542.4 입찰 및 계약사무 542.5 노동, 시간, 재료의 견적 및 건축비 542.6 감리 542.8 건축시공, 공사 542.9 기타건축시공	542 건축 시공 및 적산 542.1 건축활동 542.2 건축산업(신설) 542.4 입찰 및 계약사무 542.5 노동, 시간, 재료의 견적 및 건축비 542.6 감리 542.8 건축시공, 공사 542.9 기타건축시공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 547.1 방열성 부분난방 547.2 공기난방 547.3 온풍난방 547.4 온수난방 및 배관작업 547.5 증기(스팀)난방 547.7 기타 난방방법 547.8 환기 및 공기조화	547 난방, 환기 및 공기조화 공학 547.1 방열성 부분난방 547.2 공기난방 547.3 온풍난방 547.4 온수난방 및 배관작업 547.5 증기(스팀)난방 547.7 기타 난방방법 547.8 환기 및 공기조화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543.1 구조역학 543.2 석재구조 543.3 벽돌구조 543.4 목구조 543.5 타일 및 테라코타 구조 543.6 블록구조 543.7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543.8 철골구조 543.9 기타 재료의 건축	543 구조역학 및 건축일반구조 543.1 구조역학 543.2 석재구조 543.3 벽돌구조 543.4 목구조 543.5 타일 및 테라코타 구조 543.6 블록구조 543.7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543.8 철골구조 543.9 기타 재료의 건축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48.1 도장작업 548.2 수성도료(도장) 548.3 목재의 마감손질 548.5 유리세공 548.6 도배 548.8 바닥마감 548.9 인테리어	548 건축마감 및 인테리어 548.1 도장작업 548.2 수성도료(도장) 548.3 목재의 마감손질 548.5 유리세공 548.6 도배 548.8 바닥마감 548.9 인테리어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544.1 친환경건축 544.3 도난방지구조 544.4 방화구조 544.5 내화구조 544.6 해충방지구조 544.7 충격방지구조 544.8 방수, 방습, 빛조절 구조 544.9 기타 특정목적에 위한 구조	544 친환경건축 및 특정목적건축 544.1 친환경건축 544.3 도난방지구조 544.4 방화구조 544.5 내화구조 544.6 해충방지구조 544.7 충격방지구조 544.8 방수, 방습, 빛조절 구조 544.9 기타 특정목적에 위한 구조 시스템 육질, 주방, 침실 그 외에 공장에서 공간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포함한다.	549 각종 건물 549.1 궁전, 성곽 549.2 종교건물 549.3 공공건물 549.4 과학 및 연구용 건물 549.5 공업용건물 549.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9.7 주거용건물 549.8 기타 건물	549 각종 건물 549.1 한국 전통 건축 549.11 궁궐 549.12 성곽 549.13 한옥 549.2 종교건물 549.3 공공건물 549.4 과학 및 연구용 건물 549.5 공업용건물 549.6 상업, 교통, 통신용 건물 549.7 주거용건물 549.8 기타 건물

* 밑줄 친 굵은 글씨는 수정 전개한 항목임.

여섯째, KDC 6판에서는 NDC와 달리 '건축, 건축학' 항목에 건축업을 별도로 다루지 않는다. 건축학은 학문의 특성상 실무를 맡고 있는 건축가나 건축사무소 등에서 발행한 도서도 전체 발행문헌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건축업'은 건축산업이나 건설사 등의 문헌에 대한 접근점으로 유용할 것이다. 다만 NDC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한국 실정에 맞게 건축산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건축회사 및 건축활동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업과 관련한 문헌을 분류하는 항목이므로 '건축, 건축학'의 구조상 542의 '건축 시공 및 적산'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542.2와 542.3은 KDC 5판에서의 이동으로 항목이 비어 있으므로 542.1의 '건축활동'에 이어지는 542.2에 '건축산업'을 추가한다.

일곱째, UDC 표준3판에서는 DDC, KDC, NDC에 없는 '간단한 장치와 도구(Simple units, Builders' hardware)'에 대한 항목이 있다. 이는 건축과 관련한 도구나 장치 외에도 창문이나, 욕실, 문, 그 외에 공장에서 공간 단위로 생산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분류도 가능한 항목이다. 창문이나 문 등의 세부 구조는 특별한 지시 없이도 545 '건물 세부구조'에 분류할 수 있으나, 시스템 욕실이나 주방 등 최근 건축 산업분야에서 공장에서 생산하여 조립하는 식의 주거 구조나 건축 구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가 늘고 있으므로 항목의 추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공장 등에서 생산되어 공간에 바로 넣을 수 있는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구조는 조립식으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특정 목적에 따른 구조로 보고 544.9 '기타 특정목적에 위한 구조' 아래에 주기를 추가한다.

5. 결론 및 제언

KDC 6판의 건축학은 5판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많은 개정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KDC 5판에서는 건축공학과 건축술로 나뉘어 있던 건축학이 6판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공학 쪽으로 합쳐졌지만 이는 건축의 예술적인 요소를 다루기 어려울 수 있다. 무엇보다도 5판을 사용하는 도서관에서는 새로운 분류표를 따를 경우 610 건축술에 해당하는 기존 도서들을 재분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판의 내용이 6판의 549 각종 건물의 세목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549 각종 건물에 기 분류되었던 도서들을 재분류하고 610 건축술에 해당하는 도서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뒤따른다. 다만 현재 610은 공기로 비어 있으므로 6판 이후의 개정판에서 새로운 학문분야로 전개시킬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를 기준으로 보면 610 '건축술'에는 4,996건, 611부터 618까지 각종 건축물을 다루는 항목에는 전체 7,255건, 619 '장식 및 의장'은 3,545건의 서지가 있어 전체를 재분류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 그러므로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은 6판뿐만 아니라 이후 개정판에 대하여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기존 문헌의 재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

KDC 6판에서는 공기로인 610의 경우, 향후 타학문분야를 위해 재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KDC를 사용하는 도서관들이 분류번호 이동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비워둘 필요가 있다. DDC의 경우 분류기호를 재배치하여 빈 번호의 경우 여러 판에 거쳐 비

위 놓아 서로 다른 학문분야나 주제가 섞이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KDC 5관의 610 예술분야 아래 전개 되었던 510 '건축술'은 520 '건축, 건축학'으로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분류기호가 이전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건축사'는 세목 이하에서 시대 구분과 지역 전개가 가능하게 되며 분류번호가 이전보다 훨씬 길어지게 되므로 주제 세분의 가능성이라는 장점과 분류기호 증가로 인한 조기성 부족과 이용자의 불편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가진다.

본 연구는 분류표의 십진분류표의 구조와 내용적인 측면에 염두를 두었기 때문에 6관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불편, 수월성에 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건축학 분야의 분류표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도 윤춘섭(1995)의 연구가 마지막이므로 실제 건축 분야의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분류 적용 사례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NDC 신정10판이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므로 NDC 최신판의 비교 분석 연구도 후속연구로 이루어져 KDC 개정에 기초 자료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철완 (2014). 도서관 분류법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1), 173-191.
- 김수정 (2013). KDC 제6관 디자인학 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3), 53-72.
- 김연례 (2009). KDC 제5관 건축공학분야 분류체계 개선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4), 401-425.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2014. 5. 29). 건축학. Retrieved from <http://www.doopedia.co.kr>
-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 (2013). KDC 제5관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2), 359-376.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59>
- 윤춘섭 (1995). 한국 십진분류법(KDC) 중 건축관련 부분의 사용실태 및 실용성에 관한 연구. 大韓建築學會論文集, 11(6), 49-56.
- 윤춘섭 (1999). 한국 십진분류법(KDC) 제4관 중 540건축공학 부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5(12), 109-116.
- 윤춘섭 (2001). 한국 십진분류법(KDC) 제4관 중 610건축술 부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2), 97-104.
- 윤춘섭 (2002). 국내 인터넷 서점의 건축도서 분류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8(2), 29-38.
- 이창수 (2008). UDC 표준판의 구조적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3), 299-320.
- 이희진, 김정현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관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301-317.

- 정옥경, 이장익, 최정희 (2013). KDC 제6판 약학분야의 분류항목 전개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4), 281-299.
- 한국도서관협회 (2009).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14. 5. 29). 건축학. Retrieved from <http://encykorea.aks.ac.kr/>
- 林淸 (1995). 日本十進分法. 新訂9版. 東京: 日本圖書館協會.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London: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 Dewey, M. (2011).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OCLC.
-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Korea (2014. 5. 29). 건축. Retrieved from <http://preview.britannica.co.kr/>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ung, Ok-Kyung, Lee, Jangik, & Choi, Jung-Hee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armacy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281-299.
- Doopedia (cited 2014. 5. 29). Architecture. Retrieved from <http://www.doopedia.co.kr>.
-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cited 2014. 5. 29). Architecture. Retrieved from <http://encykorea.aks.ac.kr/>
- Kim, Soojung (2013).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desig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3), 53-72.
- Kim, Yeon-Rye (2009).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KDC 5th edition of architecture engineering classification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4), 401-425.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9). Korea Decimal Classification. 5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 Decimal Classification. 6th edition.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k, Chul-Wan (2014). Trends in the current library classification research in Korea: A review

- of the literature in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1), 173-191.
- Lee, Chang-Soo (2008).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UDC standard edi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299-320.
- Lee, Hee-Jin, & Kim, Jeong-Hyen (2013).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4), 301-317.
- Yeo, Ki-Suk, Kong, Song-Hoon, & Oh, Dong-Geun (2013).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subject, architecture engineering, i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2), 359-376.
<http://dx.doi.org/10.4275/KSLIS.2013.47.2.359>
- Yoon, Choon-Sup (1995). A study on the popularity and partiality of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rchitecture. *Journal of Architecture Institution of Korea*, 11(6), 49-56.
- Yoon, Choon-Sup (1999). The study on the Korean Dicimal Classification with particylar reference to architecrure engineering section. *Journal of Architecture Institution of Korea Planning & Design*, 15(12), 109-116.
- Yoon, Choon-Sup (2001). A study on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architecture section. *Journal of Architecture Institution of Korea Planning & Design*, 17(2), 97-104.
- Yoon, Choon-Sup (2002).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classification of online bookshops. *Journal of Architecture Institution of Korea Planning & Design*, 18(2), 29-38.

